

## 암행어사와 마패

이기현 | 119호 조선3실 | 18:00~18:30

마패는 관리들이 지방으로 갈 때 나라의 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 패입니다. 지름이 약 10cm 정도 되는 동그란 구리패에 말 그림이 1~10마리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전국의 주요 지역에 말을 빌릴 수 있는 역驛을 설치했습니다. 관리들은 역에서 역으로 이동하며 잠도 자고 말도 바꾸어 탈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역참제驛站制라고 합니다.

고려 후기 원元의 간섭을 받으면서 말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이 때문에 허락받은 관리만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패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마패를 나무로 만들었지만 쉽게 부러지거나 손상되자 1434년(세종 16)에 철로 만들어 사용했고, 이후에는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마패는 양면에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면에 그려진 말의 수는 관리가 이용할 수 있는 말의 수로, 이는 관리의 등급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마패의 다른 면에는 발급일시와 임금의 도장을 담당하는 관청인 상서원尙瑞院에서 이 마패를 발급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승정원承政院에서 마패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중앙의 경우 왕명王命을 받들고 다니는 관원은 병조兵曹에서 증서를 발급하면 상서원에서 왕에게 보고해 마패를 발급한다고 규정했고, 지방에서는 관찰사觀察使 등이 마패를 지급 받아 보고를 올리거나 진상進上 등 필요한 때에 말을 이용했습니다. 군사 사정으로 긴급한 경우는 쌍마雙馬를 이용하고 ‘긴급사緊急事’라는 글자를 새겨 밤낮으로 달리게 했습니다.



그림 1. 나무 마패와 구리 마패

마패를 파손한 자는 장杖 80, 도徒 2년의 형벌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511년(중종 6) 12월의 기록에 보이는 상서원의 서리書吏로 근무하던 최맹손崔孟孫과 같이 마패를 도둑질해 술과 밥으로 바꾸어먹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중국의 왕조가 바뀌면 대개 연호年號를 바꾸었으므로 마패 또한 자주 개조改造되었습니다. 1730년 6월에는 마패를 소지한 제주 사람이 표류해서 청나라에 도착했는데, 그가 가진 마패에 명나라의 연호가 새겨져 있어서 청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패를 전국의 마패를 교체하기 위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당시 각 지방에 160여개, 중앙에 500여개, 모두 670여개의 마패를 주조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후기 마패는 암행어사 상징의 하나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왕에게 봉서封書와 『사목事目』, 유척鑿尺, 마패를 받고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봉서’는 암행할 지역과 임무가 적혀 있는 비밀 편지이고, 『사목』은 암행어사의 할 일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또한 ‘유척’은 시체를 검시할 때 쓰는 자입니다.

암행어사에게 발급하는 마패는 왕과 시대에 따라 달랐는데, 숙종과 영조는 3마패를, 고종은 주로 2마패를 주었습니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암행어사에게 상등마上等馬 1필, 중등마中等馬 1필과 짐을 나르는 태마馱馬 1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암행어사는 임무의 특성상 당하관堂下官이지만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고관高官만이 타는 상등마上等馬를 탈 수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지방관의 업적 및 폐단, 마을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문서로 작성해서 보고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암행어사를 상징하는 마패가 찍혀있습니다. 왕은 이 보고서를 의정부와 비변사 등에 내리고, 이는 다시 해당기관으로 옮겨져서 조치하게 했습니다.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 시간에는 암행어사와 마패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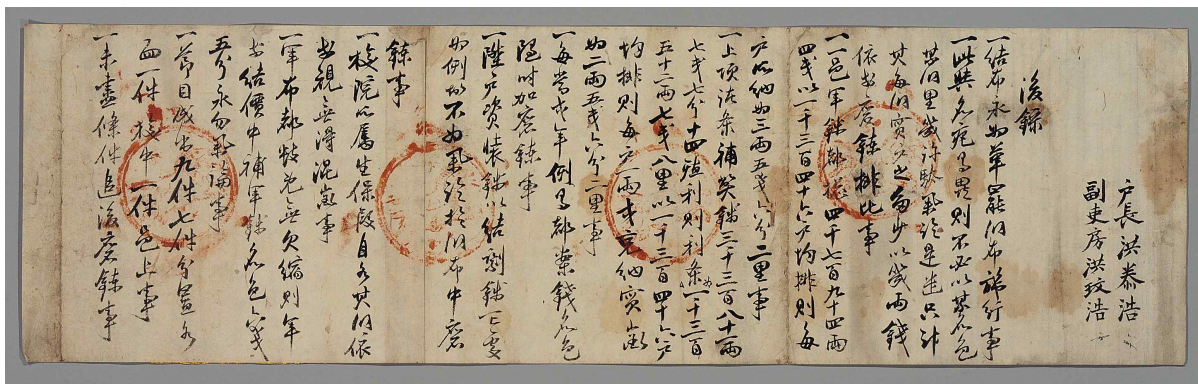


그림 2. 암행어사 보고 문서

제55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8월 16일)

## 옛 그림 속 종이이야기

천주현 | 202호 회화실 | 18:00~18:30

### □ 조선시대 종이 규격

| 명칭                               | 규격<br>세로×가로    | 단위 변화 (尺 → cm) |            |              |                        |             |
|----------------------------------|----------------|----------------|------------|--------------|------------------------|-------------|
|                                  |                | 황종척<br>黃鐘尺     | 영조척<br>營造尺 | 조례기척<br>造禮器尺 | 일본곡척<br>日本曲尺<br>(1902) | 포백척<br>布帛尺  |
| 공상초주지<br>供上草注紙                   | 2尺9寸×1尺9寸      | 100.9×66.2     | 90.0×59.0  | 79.6×52.1    | 87.8×57.6              | 142.8×93.5  |
| 초주지<br>草注紙                       | 2尺2寸×1尺5寸      | 76.6×52.2      | 68.3×46.6  | 60.4×41.2    | 66.6×45.5              | 108.3×73.9  |
| 황염초주지<br>黃染草注紙                   | =              | =              | =          | =            | =                      | =           |
| 저주지<br>楮注紙                       | 2尺2寸2分×1尺7寸    | 77.3×59.2      | 69×52.8    | 60.9×46.6    | 67.3×51.5              | 109.3×83.7  |
| 옥색저주지<br>玉色楮注紙                   | =              | =              | =          | =            | =                      | =           |
| 상유지<br>常油紙<br>(저주지착유)<br>(楮注紙着油) | =              | =              | =          | =            | =                      | =           |
| 각장후유지<br>各張厚油紙                   | 2尺3寸×2尺4寸      | 80.0×83.6      | 71.4×74.5  | 63.1×65.9    | 69.7×72.7              | 113.3×118.2 |
| 자문지<br>咨文紙                       | 1尺9分×2尺 7分     | 66.2×94.0      | 59.0×83.8  | 52.1×74.1    | 57.6×81.8              | 93.6×133    |
| 표지<br>表紙                         | 1尺3寸×3尺5分      | 45.3×121.8     | 40.4×108.7 | 35.6×96      | 39.4×106               | 64×172.3    |
| 상품도련지<br>上品搗鍊紙                   | 2尺3寸×1尺8分      | 80.0×62.7      | 71.4×55.9  | 63.1×49.4    | 69.7×54.5              | 113.3×88.6  |
| 홍패지<br>紅牌紙<br>(상품도련지)<br>(上品搗鍊紙) | 1尺8分×1尺7分      | 62.7×59.2      | 55.9×52.8  | 49.4×46.6    | 54.5×51.5              | 88.6×83.7   |
| 하품도련지<br>下品搗鍊紙                   | 2尺2寸×1寸 8分     | 76.6×62.7      | 68.3×55.9  | 60.4×49.4    | 66.7×54.5              | 108.3×88.6  |
| 대호지<br>大好紙                       | 2尺4寸×1尺7寸      | 83.6×59.2      | 74.5×52.8  | 65.9×46.6    | 72.7×51.5              | 118.2×83.7  |
| 소호지<br>小好紙                       | 2尺2寸2分×1尺6寸 5分 | 77.3×57.5      | 69×51.2    | 60.9×45.3    | 67.3×50.0              | 109.3×81.2  |
| 백면지<br>白綿紙                       | 2尺2寸5分×1尺7分    | 78.3×59.2      | 69.8×52.8  | 61.7×46.6    | 68.2×51.5              | 110.8×83.7  |
| 설화지<br>雪花紙                       | 2尺2寸×1尺1寸      | 76.6 ×38.3     | 68.3×34.2  | 60.4×30.2    | 66.7×33.3              | 108.3×54.2  |



## 중국의 불비상佛碑像

박경은 | 308호 중국실 | 19:00~19:30



그림1. 불비상佛碑像, 당 660년, 높이96.7cm

불비상佛碑像은 비석처럼 생긴 돌에 부처와 보살 등의 존상을 조각한 형식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비석의 기능과 종교적 숭배 대상인 불상이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전통 문화와 불교가 결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북위北魏(386~534)가 화북을 통일한 5세기 말부터 당唐(618~907)까지 불비상은 활발히 제작되었으며 석비石碑 제작의 전통, 불교의 확산, 신앙단체 결성과의 연관 속에서 발전했다. 주로 북위의 수도였던 산시성[山西省]과 허난성[河南省] 뤼양[洛陽], 북주北周·북제北齊의 중심지였던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과 허베이성(河北省) 런장현[臨漳縣]을 중심으로 다수 제작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 불비상은 모두 9점으로, 모두 북위北魏와 당代唐代 사이에 제작된 것이다. 전시된 불비상 중에서 2점은 북위 영안永安 2년(529), 당 현경顯慶 5

년(660)이라는 정확한 연대가 남아 있다. 나머지는 형식적 특징을 고려할 때 북제北齊(550~577) 시기로 추정된다. 조각은 여러 가지 모티프를 단순화, 생략, 변형된 부분과 이례적인 요소도 관찰된다.

불비상은 지배층이나 상류층에서 발원한 예도 있지만 읍의邑義와 같은 민간의 신앙 공동체에서 제작한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불비상은 마을의 입구, 사원의 뜰에 세워졌으며 해당 지역민의 종교, 사회,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물이 되었다. 이 같은 불비상은 연대와 발원 배경이 기록된 경우가 많아 동시기 불교 조각과 신앙 활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제55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8월 16일)

##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15)

### - 말라 지역의 묘비

김승익 | 기획전시실 | 19:00~19:30

메카의 북쪽 인근 말라(al-Ma'la) 지역에서 출토된 수 백개의 초기 이슬람 시대(9-15세기) 묘비들은 무슬림들의 삶과 죽음, 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메카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불규칙한 형태의 현무암을 이용해 만든 묘비들은 죽은 사람이나, 조상, 부족의 이름을 적어 놓았고 때로는 직업도 표시했다. 비문은 항상 바스말라(basmala, 자비심 깊고 자애로운 신의 이름으로)으로 시작되며, 이슬람 신앙 선언인 샤하다(Shahada)가 다음으로, 그리고 쿠란의 특정한 구절로 끝이 난다. 대부분의 묘비에는 사망 한 사람의 이름, 조상 및 지리, 부족 또는 민족의 기원이 표시된다. 때때로 개인의 직업도 포함된다. 묘비에 새겨진 글씨는 아랍어 서체의 탁월한 예술성을 보여준다. 간단한 명문에서부터 대담하고 실험적인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의 서예 장인들은 다양한 아랍어 서체로 묘비에 글씨를 새겼다.



그림 1. <사이크 아부 바크르의 묘비> 1217년, 가스르키잠박물관 소장

#### <비문 내용>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에게 찬양을!  
자비롭고 은혜로운 신의 이름으로,  
신과 그 사도들을 위해 집을 나간 자는 죽음이 그에게 드리우  
더라도, 신이 그에게 보상해 주니 신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에 자비로운 분이시다 .  
이것은 의롭고 부유하며, 훌륭했던 율법학자  
아부 바크르의 무덤으로, 그는 타바리스탄 출신의 이브라힘의  
아들 무함마드의 아들이며, 아라파 동산의 기도(우끄프)하는  
곳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가 이슬람력 613년 12월 8일,  
그가 성지 순례를 수행하는 도중이었다.  
신께서 그와 모든 무슬림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신께서 무함마드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이 비석은) 우바이 하라미의 아들 아브다라흐만이 쓴 것이다.  
신께서 그와 모든 무슬림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신께서 무함  
마드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